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KIA 일본 미야자키현 마무리 캠프

1대1 맞춤형 훈련…'맹호'로 거듭난다

타격·수비·주루 장·단점 체크
선수-코치 집중 교육시간 가져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라!"

대학수능시험을 10여일 남겨놓은 수험생들의 교육방식이 아니다. 올 시즌을 최하위로 마감한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새롭게 도입한 가을캠프 훈련법이다.

지난 2일부터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에 가을캠프를 차린 KIA 선수단이 맞춤형 교육으로 체질개선을 선언하고 나섰다.

◀ 5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에 위치한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 KIA 내야수 이강서가 3루 수비 훈련 때 멋진 다이빙 캐치를 선보이고 있다.

조범현 KIA 감독(왼쪽)이 5일 투수 이범석에게 보완점을 지적하고 있다. /KIA타이거즈제공

KIA 선수단은 오후부터 선수 개인별로 취약한 부분을 조련받는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집중훈련 프로그램은 코치 1명이 선수 1명을 전담으로 맡아 1~2시간동안 조련하는 맞춤형 훈련방식이다. 이전엔 오전, 오후 팀 전체가 함께 훈련하는 방식으로 캠프를 꾸려왔다. 이는 나머지 프로야구 구단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번 KIA의 가을캠프에선 번트, 수비, 타격, 주루 중 특정 분야에 약점이 있는 선수는 코치와 1대1로 집중교육 시간을 갖고, 체력이 약한 선수는 오직 체력강화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특기적성 교육과 비슷한 훈련법이다. 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KIA는 정규 수업시간에 맞춤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변화된 훈련법에 대해 선수들도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범현 KIA감독은 "선수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캠프에서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공동으로 훈련을 하다보니 개인별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훈련법을 바꾸게됐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제1회 광주일보 아마추어 골프 26일 개막

"늦가을 그린 내가 주인공"
접수첫날 전국서 신청쇄도

우승자 함평다이너스티 VIP 회원권

순수 남녀 아마추어 골퍼들의 가을잔치가 될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전국 아마추어 골퍼들의 뜨거운 호응과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6일 호남최초 4계절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개최 될 이번대회 접수 첫날인 5일, 80명이 참가접수를 마쳤으며 그외 신청자가 100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대회에 신청을 한 골퍼들은 주로 30~40대의 아마추어 골퍼들로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 여수·광양, 목포 등에서 신청자들이 몰렸다.

골프의 저변확대와 아마추어 골퍼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 함평군 후원과 대한화재, 대한조선의 협찬으로 US-GTF-KOREA(미국골프지도자협회 한국지부)에서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는 프로선수 또는 아마추어 국가대표및 상비군이 아닌 순수 아마추어 골퍼 160명(40팀)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경기방식은 남녀 최강자전및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강자전에서 우승한 남녀 각 1명은 함평다이너스티CC 1년간 VIP회원대우를 받는다. 신페리오방식 우승및 최강자전 준우승 남녀 각 1명에게는 역시 함평다이너스티CC 1년간 회원대우가 제공된다.

신페리오방식 준우승 남녀 각 1명은 함평다이너스티CC 1년간 준회원대우를 받게 되며 홀인원상 최초 1명에게는 대형 승용차가 주어진다.

또한 롱 게스트 남녀 각 1명에게 켈러웨이드라이버와 전자제품, 니어리스트 남녀 각 1명에게 켈러웨이 퍼터와 전자제품이 주어진다.

이밖에 시상식장에서 추첨을 통해 뽑힌 행운상 10명에게는 골프용품과 전자제품이 지급된다.

이번대회 특전으로는 남 77타, 여 82타, 장년부(만 41~49세) 79타, 시니어(만 50세이상) 82타 이하 스코어를 낸 참가자들에게 US-GTP(미국골프지도자협회) 티칭프로 선발 시험 실기테스트 합격권이 부여된다.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이며 그린피, 캐디피, 식음료등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골프모자와 만찬이 제공된다.

▲참가신청= 온라인 접수-함평다이너스티 홈페이지(hpdynastycc.co.kr), 입금계좌-광주은행 727-127-005215 예금주 광주일보사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올림픽 야구대표 주장의 역투

5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상비군과의 경기에서 박찬호가 혼신을 다해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요정' 김연아 새 과제
올부터 채점기준 더 엄해져

지난해 시니어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피겨요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이번 시즌부터 더욱 엄격해진 채점기준에 맞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김연아는 8일부터 중국 하얼빈에서 치러지는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시리즈 3차 대회인 '차이나컵'에 출전한다.

차이나컵은 김연아의 시즌 첫 대회로 그동안 캐나다 토론토 전지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피겨팬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성인무대에 뛰어든 캐롤라인 장을 비롯해 '백전노장' 수구리 후미에(일본) 등 쟁쟁한 실력의 경쟁자들이 출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경쟁자 뿐 아니라 이번 시즌부터 강화된 채점기준도 시니어 무대 2년차를 맞는 김연아가 넘어야 할 과제다.

ISU는 이번 시즌부터 기술요소점수(TES)의 판정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 세밀해진 비디오 판독을 통해 회전수를 채우지 못한 점프는 물론 잘못된 에지(edge·스케이트 날에서 빙판과 닿는 부분)를 통한 점프도 감점을 주고 있다. 다행히 강화된 채점기준은 오히려 점프 기술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연아에게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을 전망이다.

임혜경 빙상경기연맹 피겨 경기이사는 "김연아는 여자선수로는 드물게 러츠를 포함해 점프 동작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 강화된 기준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승민 세계랭킹 8위
올림픽 4강 시드 확보 희망

남자 탁구 '간판' 유승민(삼성생명)이 올림픽 2연패 달성에 결정적인 4강 시드 확보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유승민은 5일 국제탁구연맹(ITTF)이 발표한 세계랭킹이 종전 9위에서 8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지난달 월드컵 때 '천적' 마린(세계 2위)과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왕리친(3위)을 잇따라 꺾은 유승민은 결승 대결을 펼친 왕하오(1위·이상 중국)에게 0-4로 져 준우승했다.

유승민은 4강 시드를 받아야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 강호들과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있다.

올림픽에는 국가별로 3명씩만 참가하는데 왕하오와 마린, 왕리친 등 중국 선수 3명이 세계 1~3위에 포진해 있고 유럽의 강호 티모 볼(독일)에 4위에 올라있다. 또 5위에 블라디미르 삼소노프(벨로루시), 6위와 7위에 중국의 천치, 마룽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다.

남은 독일오픈, 스웨덴오픈과 그랜드파이널스 등에서 랭킹을 끌어올리면 4강 시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최경주 올 상금 랭킹 5위…459만 달러

에임스 네크워크클래식 우승…PGA 마감

스티븐 에임스(캐나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에임스는 5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레이크 비에나비스타 매그놀리아 골프코스(파72·7천516야드)에서 열린 칠드런스 미러클 네크워크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팀 클라크(남아공.16언더파 272타)를 1타차로 따돌렸다.

에임스는 2006년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1년7개월여만이자 통산 세번째 PGA 투어 우승컵을 수집하며 전년도 우승자만 초청해 열리는 2008년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출전권도 함께 따냈다.

공동 1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은 에임스는 11번홀까지 버디 2개, 보기 1개를 곁들여 클라크, 스콧 버플랭크(미국)와 우승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에임스는 13번홀(파4)에서 15번홀(파3)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낚아 승기를 잡았다.

버플랭크는 15번홀까지 3타를 줄이며 통산 여섯번째 우승을 노렸지만 파4홀인 16번홀과 18번홀에서 1타씩을 잃어 버리는 바람에 합계 14언더파 274타, 공동 3위로 밀렸다.

중위권 진입을 바라보았던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보기 4개, 버디 2개로 2타를 잃어 버려 합계 3언더파 285타로 공동 63위까지 떨어졌다.

상금 집계가 이번 대회로 마감되면서 125위 안에 든 선수들이 내년 PGA 투어 출전권을 얻게 됐다.

타이거 우즈(미국)가 1천만86만7천52달러로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PGA 투어 진출 이후 가장 높은 5위(458만7천859달러)를 차지했다.

위창수는 84위로 시즌을 마감했고 나상욱(23·코브라골프)은 122위로 턱걸이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